

따뜻한 광양으로...동계훈련팀 몰린다

4개 종목 75개팀 1100여명 구슬땀 온난한 기후·쾌적한 환경 등 영향 다음달 150개팀 전국고교 축구대회

“따뜻한 남쪽의 도시” 광양이 동계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탁구·육상·축구·수영 4개 종목에 75개팀 1119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광양 관내 경기장에서 겨울훈련에 전념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참가팀은 초등학교부터 대학 실업팀까지 다양하다. 올해 전지훈련 팀 규모는 내달까지 방문 예정 팀(30개팀, 450여명)을 감안하면 지난해(89개팀 1345명) 보다 200여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가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꼽히는 이유는 단연 따뜻한 기온이다. 일조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 정도로 온난하기 때문이다. 훈련에 큰 불편함이 없는 대형경기장과 쾌적한 주변 환경 그리고 백운산 매화마을을 숲불구이 등 관광지와 먹거리가 풍부한 점이 전국 스포츠 팀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광양시의 전지훈련 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한 몫하고 있다. 방문팀에게는 광양 특산품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광양시티투어도 구상하고 있다.



광양시와 광양시체육회가 지난 16일 광양에서 전지훈련 중인 육상팀 선수들을 방문해 격려했다.

또 광양시와 광양시체육회는 지난 16일 방문 팀들을 찾아가 기념품을 전달하며 격려했으며, 훈련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을 듣고서 즉각 개선함으로써 선수단이 최상의 조건에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적으로 많은 팀들의 방문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23년 현대산업정보연구원 용역 결과에 따르면 훈련 참가 1인당 하루 9만7000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적용하면 총 방문자 1119명인 올해의 경우 27일 현재 10억 1000여만원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광양시 관계자는 “경제적 효과는 팀의 체

류 기간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훈련이 끝나는 날까지 감안하면 경제효과가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전지훈련 참가팀 75개 팀중 10일 이상 체류하는 팀은 31개 팀이며, 특히 충북 괴산군청 육상팀(8명)은 50일(1월9일-2월27일) 훈련으로 가장 오래 머물렀다. 종목별 참가팀은 육상 15개팀, 축구 24개팀, 탁구 35개팀, 수영 1개팀이다. 한편 다음달 13일부터 27일까지 열릴 백운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 150개팀 3000여명의 선수가 방문해 지역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빈집 58곳 정비...다음달 7일까지 신청

순천시가 올해 2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빈집 58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정비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빈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거주자가 없거나 사용되지 않는 주택이나 주택에 부속된 건축물로, 철거(51곳)·철거후 활용(2곳)·안전조치(5곳) 등 3가지 방법으로 정비된다. 빈집 철거를 원하는 소유자는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다음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철거 후 활용’과 ‘안전 조치’를 희망하면 오는 10월까지 시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빈집 철거’의 경우 시에서 빈집 1곳 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빈집 철거 후 활용’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가 직접 철거해 공용공간으로 조성한 후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한다. ‘안전조치’의 경우 빈집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빈집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펜스 및 출입금지판을 설치한다. 시에 따르면 1월 현재 순천의 빈집은 1300여 곳에 달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화재, 붕괴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이 지난 22일 군립노인전문병원에서 치매환자가족 대상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곡성군 치매환자가족 14명 치매파트너 교육

곡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2일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치매환자가족 제1기 자조모임과 연계하여 치매환자가족 14명에게 치매 파트너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입원 중인 치매환자가족들을 위한 자조모임 ‘마음잇기’는 치매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돌봄의 긴 시간을 잘 헤쳐가게 하는 지혜와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원내 입원중인 치매환자가족 정보교환 및 자조모임 지원 ▲자조모임을 통한 상호 정보교환 및 전문의와 Q&A ▲곡성군치매안심센터 치매파트너교육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공예프로그램 순으

로 진행했다. 곡성군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내 치매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에서 시행하는 자조모임 참가자에게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 역할에 대한 관심도를 한층 더 높였다. 치매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 초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나 치매 파트너 교육을 수료하고 치매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고흥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다음달 3일까지 신청 접수

고흥군이 축산업 경쟁력 도모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을 2월 3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축사신축 및 개보수,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해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 신청은 2개 분야로, 먼저 FTA 기금 지원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다. 그 외 농가는 농특 회계 이차보전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형태는 용자 80%와 자부담 20%이다. 축종 및 축사 면적에 따라 최대 상한액이 정해진다. FTA 기금은 연리 1%, 농특회계 이차보전은 연리 2%로,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축사신축 및 개보수, 축산환경 개선 시설 설치, 스마트 축사시설 구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농가는 부지확보 및 인허가 완료, 당해년도 대출실행 가능 등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보수를 넘어 가족 사육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스마트 축산 도입을 위한 핵심 전략이며, 많은 농가가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더 따뜻한 보성 만들자...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보성군은 최근 녹차골보성향토시장을 이용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 캠페인 ‘더 따뜻한 보성군 만들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나선 보성군청 직원들을 비롯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보성군 청년새마을연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이웃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온정을 베풀기 위해 진행했다.

또 캠페인 참여자들은 군민 한분 한분 찾아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 긴급복지, 일상돌봄 서비스 등 지역복지사업을 홍보하는 리플릿과 겨울 장갑을 배부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적극 찾아줄 것을 홍보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통해 더 촘촘하고 따뜻한 보성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여수시 휴대폰 시내버스 위치 확인 서비스

카카오톡 앱 통해 실시간 안내 여수에서 휴대폰으로 시내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가 지난 23일부터 ‘카카오톡’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내버스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조정밀버스 안내 서비스’를 시행했다. 조정밀버스 안내 서비스는 카카오톡 지도상에서 시내버스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습과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카카오톡 첫 화면에서 메뉴바를 누르고 ‘조정밀버스’ 기능을 켜면 버스 속도·목적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안내서비스 시행을 위해 시는 지난해 버

정보시스템(BIS)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월 초 카카오톡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비스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특히 여수시 시내버스 200여대에 설치된 단말장치 등을 업그레이드 했다. 이로써 시민들은 시내버스 운행 상황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돼 정류장에서 오랜 대기 시간을 피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에게도 유익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2026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대중교통 기반 확충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채본부장 chkim@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